

◎한국 IPG의 활동

- IPG세미나를 되돌아보며 01
- '차세대가 생각하는 지식재산 전략 2024'를 주제로 제40회 한국 IPG 세미나 개최 02
- '한국의 산업재산권 입문' 및 '일본의 산업재산권 입문'을 주제로 제41회 한국 IPG 세미나 개최 04

◎IP를 알자

- 한국IP뉴스 05
-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자금' 06
 - 유럽 특허출원 간수, 한국 5위 차지
 - 한국의 지식재산권 QR코드 표시
 - 한일중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NEW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사무국 메시지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2월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제트로 한국 지재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QUIZ 퀴즈를 맞춰봅시다!

2025년은 한국의 '발명의 날'이 제정될지 몇주년을 맞이하는 해일까요?

- ① 50주년 ② 60주년 ③ 100주년

※ 정답은 본지 3페이지 하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국IPG의 활동

IPG세미나를 되돌아보며

2024년은 지식재산권을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게 배울 수 있는 세미나를 기획하여 실시했습니다. 많은 강사분과 선생님 협력 덕분에 참석자가 많은 매우 유익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개최한 세미나를 되돌아보면서 간단히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개최한 한국 IPG세미나



【제37회】 2024. 2. 26. (월)
‘애니메이션, 만화,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매력’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주제로 콘텐츠를 통해 저작권을 깊이 이해하여 콘텐츠의 매력으로부터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만화, YouTube에서 바라보는 저작권의 모습’
‘Anime X Game Festival 2023에서의 출전 체험기’
‘콘텐츠와 지자재 협업(시즈오카현 사례)’



【제38회】 2024. 5. 9. (목)
‘일본어로 한국 특허 정보를 조사해 봅시다!’

J-PlatPat를 활용하여 일본어로 한국 특허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 프로그램

‘J-PlatPat를 활용하여 일본어로 한국 특허 정보를 조사해 봅시다!’



【제39회】 서울 : 7. 26. (금) / 도쿄 : 7. 30. (화)
‘한국의 상표 최전선 2024’

한국 상표 제도의 최신 동향을 법제도 개정과 상표의 실제 활용 사례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소개했습니다.

• 프로그램

‘한국 상표 제도의 최신 동향’
‘한국의 최근 상표 제도 활용 동향’



【제40회】 2024. 9. 27. (금)
‘차세대가 생각하는 지식재산 전략 2024’

숙명여자대학교와 공동 개최한 세미나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생 여러분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었습니다.



【제41회】
‘한국의 산업재산권 입문’ 2024. 10. 24. (금)
‘일본의 산업재산권 입문’ 2024. 11. 27. (수)

한국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IT)과 공동 개최한 세미나입니다. 한국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산업재산권 기초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산업재산권 기초를 소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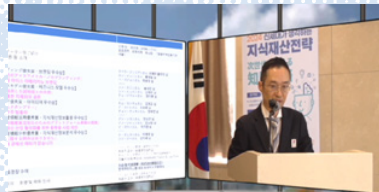
2024년 세미나는 새로운 시도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부상한 콘텐츠에 대해 IP R&D 관점에서 중요시되는 특허 정보 검색에 대한 세미나, 오랜 만에 한일 양국에서 개최한 상표 관련 세미나, 처음으로 대학생과 함께한 세미나, 그리고 한일 양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교차 세미나 등을 개최했습니다. 2025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기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가 생각하는 지식재산 전략 2024’를 주제로 제40회 한국 IPG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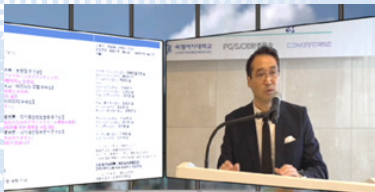
한국 IPG는 선진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협력으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숙명여자대학교 학생 여러분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두고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여러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한팀 당 2~3명으로 구성된 총 15팀이 응모했습니다. 그 중 상위 5팀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고 세미나 당일 우수상을 수상한 5팀이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에는 전문가 선생님이 각 발표 내용에 대한 강평을 해주었으며 마지막으로 표창식을 가졌습니다. 세미나는 대면 개최와 동시에 온라인 톨인 ZOOM 웨비나 및 메타버스를 통해 라이브로 중계되었습니다.

프로그램	2024년 9월 27일 (금)
13:00~13:10	개회식 오츠카 부소장 (JETRO 서울)
13:10~13:20	내빈 및 심사위원 소개
13:20~15:00	발표 (순서는 당일에 정해집니다.)
【브랜딩 우수상】	
‘차세대 아이스 아메리카노 브랜딩’	
【비즈니스 모델 우수상】	
‘시를 통한 치매와의 공존’	
【아이디어 우수상】	
‘무꾸무꾸 텀블러’	
【지식재산 정보 활용 우수상】	
‘지식재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사업 제안’	
【지식재산 정보 분석 우수상】	
‘안전에 관해선 예외가 없습니다’	
15:00~15:30	강평 한유진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15:30~15:50	표창장 수여 오모타니 대표이사 (한국히타치)
15:50~16:00	총평 및 폐회사 하윤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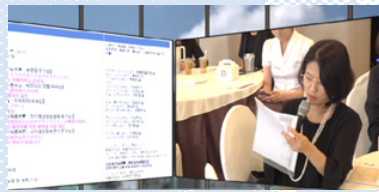
프로그램 및 진행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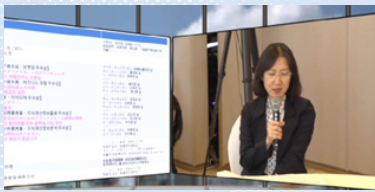
[개회식] JETRO 서울 부소장 오츠카 유우이치



[폐회식] 숙명여자대학교 하윤수 교수



[강평] 숙명여자대학교 한유진 교수 (사업단장)



[강평] WANNABE Patent & Law Firm 김율리 변리사



[표창식] 수상자와 한국 IPG 리더 오모타니 토오루 (한국 히타치 대표이사 사장)



[표창식] 수상자 소감

각 수상 내용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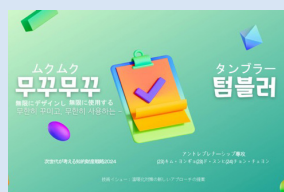
【브랜딩 우수상】
‘차세대 아이스 아메리카노 브랜딩’
리베라 줄리안 학생
홍예림 학생
하유정 학생

시장 분석을 통해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환경, 가격, 맛, 건강의 4가지 과제에 대해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우수상】
‘시를 통한 치매와의 공존’
송수민 학생
신예빈 학생
최지원 학생

치매 치료의 현황을 분석하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치매와 공존하기 위한 기술을 검토해 시를 활용한 선행 특허 등을 조사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아이디어 우수상】
‘무꾸무꾸 텀블러’
김영교 학생
도승희 학생
정채연 학생

유행중인 텀블러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선행 기술을 조사하고,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고객의 텀블러 수집 욕구를 충족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지식재산 정보 활용 우수상】 실제로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조사한 경험을 토대로 누구나 쉽게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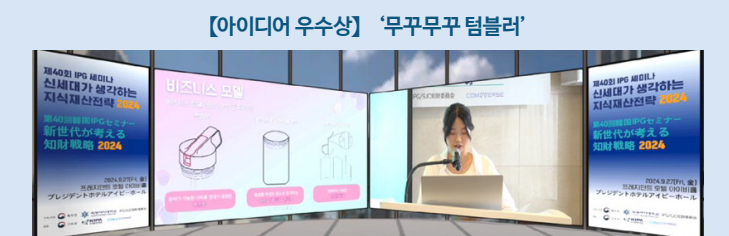
Scope
THERE ARE NO EXCEPTIONS FOR SAFETY
안전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식재산 정보 분석 우수상】 인파로 가득한 수영장에서 ‘안전에 관해선 예외가 없습니다’

이재영 학생
신지혜 학생

인파로 가득한 수영장에서 긴급 사태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는 기술에 관한 선행 기술조사 등을 실시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5팀 모두 과제 선정부터 해결 방안의 검토와 해결책에 이르기까지 조사 및 분석 등 접근 방법에 있어 지식재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였고 굉장히 훌륭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고려한 고안과 현대 사회의 글로벌 과제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었으며,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실용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 내용까지 궁금해지는 흥미로운 세미나였습니다.



발표 장면



흐름을 이어나가 2025년에는 일본 관계자들도 참여해 한일 양국의 차세대 청년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새로운 제안을 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굉장히 유익하고 흥미로운 세미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재 홈페이지를 통해 지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 한국 지식재산 뉴스 (뉴스레터 매달 2회 발행)
- 법률 개정 정보, 정책 정보, 통계 정보
- 지재 판례 데이터베이스 (1999년 이후 500건 이상의 지재 판례 개요 및 전문가 조언 제공)
- 각종 조사보고, 매뉴얼 등 제공 중



<https://www.jetro.go.jp/korea-ip>



정답은 @60주년입니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발명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올해 2025년은 6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한국 특허청은 발명의 날을 맞아 60주년 기념 행사 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Best 60, Next60’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레머니를 진행하며 지난 60년 동안의 발명을 통한 기술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발명 의식을 한층 더 높여줬다고 다짐했습니다.

● ‘한국의 산업재산권 입문’ 및 ‘일본의 산업재산권 입문’을 주제로 제 41회 한국 IPG세미나 개최

한국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과 한국IPG는 웨비나 형식으로 한국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산업재산권 기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마찬가지로 일본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산업재산권 기초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IIPTI와 JETRO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처럼 교차 세미나를 통해 상호 국가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양국의 지식재산 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각국에서 지식재산제도 활용을 촉진시켜 지식재산 업계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산업재산권 입문

1. 프로그램 (일본어로 강연)

- ① 14:30 ~ 14:40 개회사 IIPTI
- ② 14:40 ~ 15:40 '한국의 산업재산권 입문'
 - 산업재산권의 정의
 - 산업재산권의 종류(특허, 상표, 디자인)
 - 최근 제도 동향
 -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 및 지재권 활용 관련 사례
- ③ 15:40 ~ 15:50 질의응답
- ④ 15:50 ~ 16:00 폐회사 IIPTI

2. 강사소개



정석현

【변리사】한국 (2011), 【행정사】한국 (2020)
 - 감·장 법률사무소 (2012-2021.5. / 2024.5 - 현재)
 -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2000-2004)
 - 특허청 (2004-2012)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판원
 - 법률사무소 그루 (2021.6-2022.3)

- 특허법인 그루 (2022.4-2024.4)
 -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2022.4-2024.4)
 - 대전고등검찰청 영장심사의위원회 위원 (2023.1-현재)



김진백

【변리사】한국 (2004)
 - 감·장 법률사무소 (2012-현재)
 - 특허법인(유)화우 (2005-2006)
 - Toyota Technical Development Co.(2006-2008)
 - Fujitsu Ltd. (2008-2012)



온라인 연수 장면

연수에서는 지식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각 제도의 설명과 심사, 심판에 관한 절차까지의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일본계 기업의 한국 진출 현황, 한국 비즈니스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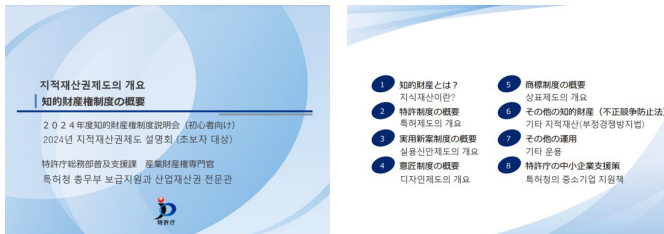
일본의 산업재산권 입문

JETRO 서울이 일본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산업재산권 기초를 일본어로 소개하여 한국어 통역을 제공했습니다. 자료는 2024년 지적재산권 제도 설명회(초보자 대상)에서 사용된 일본 특허청 총무부 보급지원과 산업재산권 전문관이 작성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개요’를 활용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일본특허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www.jpo.go.jp/news/shinchaku/event/seminar/2024_chizai-setsumeikai_beginner.html

또한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의 ‘IP ePlat’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소개드린 자료를 사용하여 일본의 산업재산권 제도 개요를 소개하고, 실제로 일본의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이 활용된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지적재산권제도의 개요

이번 세미나는 한일 양국의 지식재산 제도와 활용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상호 제도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ETRO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특허정보’도 국가 자산…‘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

| 한국특허청 (2024.8.6.)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8. 7.(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①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②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③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석 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맞물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데이터)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산업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하였고, 관련부처, 특허정보서비스업체, 출원인·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② 한국 헤이그 협정 가입 10주년 기념 한·일·중 디자인포럼 성황리 개최

| 한국특허청 (2024.9.3.)

특허청은 9. 3.(화) 한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13회 한·일·중 디자인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에 가입**

김시형 특허청 차장의 개회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다렌 탕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한국, 일본, 중국의 특허청 관계자와 인테리어·건축 디자인 분야 주요 인사들이 디자인 보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 일본, 중국의 특허청 관계자들이 자국의 최신 디자인보호제도 개정 사항과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 시스템 이용 현황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일본과 중국에서 효율적인 디자인 보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

③ ‘27년까지 기업보유 산업재산권 200만건(‘21, 153만건), 역동경제 이끈다

| 한국특허청 (2024.11.5.)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도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기술로 온라인 짝동 판매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차단한다. 특허청은 11. 5.(화),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선순환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2년반 반환점을 맞아 마련한 지식재산 종합 전략으로, 경제주체의 혁신을 권리와 수익화하여 다시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시켜 국내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1년 153만건에서 2027년 200만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곧 혁신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 “내국인 보유특허 100만건, 지식재산 금융 10조원 돌파,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 윤석열정부의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④ 선등록상표와 '공존' 성공!대중소기업 상생이 끌어낸 '상표공존동의제'

| 한국특허청 (2024.11.15.)

스타트업 (주)아이엠디티는 반려동물 건강검진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고 제품을 출시하려던 차에 외국 대기업의 선등록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를 통지받아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다행히 상표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하여 상표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례는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계 대기업과 공존동의를 통해 상표권을 등록받음으로써 공존동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법 일부개정 (법률제19809호, '23.10.31.개정, '24.5.1.시행)**

선등록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24. 5. 1) 후 지난 6개월 동안('24. 5. 1~11. 6) 총 6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여 건이 등록결정된 것으로 보아 기업·소상공인·개인간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File No.190

한일중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2024년 5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3국 정상이 참석하여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을 공동 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해 향후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3국의 지식재산 현황

한일중 3국 특허청(이하 '3국청')은 2001년 특허심사정보의 교환 및 활용 촉진, 특허심사관행의 조화, 국제규범 정립을 목표로 3국 지식재산 분야 협력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협력으로 지난 20년간 3국청이 처리한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전체의 40%에서 60%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상표 출원 건수는 세계 전체의 20%에서 50% 이상으로 증가하여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글로벌 위기도 있었고, 기술 발전 및 혁신이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이자 지식재산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3국 지식재산 활동을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형태로 수립했습니다. 정상회의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일본국 외무성 웹사이트 '제9회 일중한 정상회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 신기술 대응

첫 번째는 '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제도를 구축한다. 3국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AI(인공지능)와 IoT(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국청은 이러한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범, 심사 실무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에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발명이 가능해진 점을 감안해서 이와 관련된 협력을 검토 및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I를 활용한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긴급 대응 과제입니다.

2.2. 특허 정보 활용 지원

두 번째 내용은 '3국청은 특허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특허 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국청은 특허 정보 분석이 학계, 연구단체, 산업계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동의 방향 설정과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3국청은 자국의 특허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된 정보를 일반에 무료로 공개하며, 민간이 공개된 특허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술 개발 및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IP R&D라고 불리는데 선행기술조사 외에도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특허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더 나아가 지식재산 정보의 가치 확대를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2.3. 다른 국가에 지원

세 번째 내용은 '3국청은 '3국+X지식재산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 3국청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3국을 넘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3국청은 지식재산 협력 파트너의 발굴을 희망할 때, 협력의 필요성이 있거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 기구(ASEAN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국청은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를 좁혀 전 세계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제3국에서의 3국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특히 ASEAN 지역 협력을 3국청 협력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마무리

이번에 다룬 내용은 모두 지식재산 분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외교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AI 혁신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설정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3국청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특허 정보는 빠르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때 매우 유용한 데 이는 이미 산업계에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번만 아니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이 기대됩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유이치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심판관으로서 심사·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특허청 총무과·조정과·심판과 과장보좌, 영국 게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